



기록적인 폭염과 휴가철을 맞아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유행성 눈병이 번지고 있다. 유행성 눈병은 7월부터 늘기 시작해서 8~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그중 바이러스에 의한 결막염은 감염성 눈병 중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다. 바이러스성 눈병의 종류인 유행성각결막염이나 급성출혈성결막염은 증상과 합병증이 심하고 전염성이 커 감수성이 높은 인구집단에 유입될 경우 사회적 문제와 많은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유행에 앞서 일차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02년 대유행한 급성출혈성결막염은 많은 학교가 휴교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손실을 가져온 사례이다. 유행성 눈병은 주로 여름철에 집단생활을 하는 아동 및 청소년층에서 특히 많이 나타난다. 이에 유행성 눈병의 전파와 증상을 알아보고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자.

유행성 눈병의 증상과 전파

유행성각결막염의 주요 증상으로는 양안의 출혈, 동통, 눈곱, 눈의 이물감, 눈물, 눈부심 등이 있으며, 대개 3~4주 동안 지속되면서 발병 후 2주 정도까지 전염성이 있다.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하며 어른은 눈에 국한되지만 어린이는 두통, 설사 등의 전신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전파경로는 환자와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눈 분비물 등), 개인용품을 통한 간접 접촉(수건, 침구물, 세면기구 등), 수영장 등 물을 통해 전파된다.

급성출혈성결막염은 1969년 아프리카의 가나에서 처음 확인된 질환으로, 아폴로(Apollo) 11호의 달 착륙시기에 발생하여 아폴로눈병이라고도 불리운다. 증상으로는 갑작스러운 동통, 이물감, 충혈, 눈부심, 다량의 눈물이며, 환자의 25%에서 열, 무력감, 전신근육통이 나타나기도 한다. 전파경로는 유행성각결막염과 같다.

유행성 눈병 예방 수칙

바이러스성 눈병은 현재 백신이 없으므로 철저한 개인위생 준수가 최선의 예방 대책이다. 흐르는 수돗물에 손을 깨끗이 씻도록 하고, 눈을 만지거나 비비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수건, 베개 등 눈 분비물에 오염될 수 있는 물건은 타인과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손씻기는 눈병 예방 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으므로 자주, 깨끗이 씻는 것이 좋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단체생활시설과 수영장에서는 유행성 눈병 감염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조기에 안과전문의의 진료를 받도록 한다.

유행성 눈병 감염 예방 수칙

- ①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수돗물에 손을 철저히 씻도록 한다.

† 비누와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60% 이상 알콜 성분의 손세정제를 사용한다.

† 유행성 눈병 환자와 접촉 후 반드시 손을 씻는다.

- ② 눈을 만지거나 비비지 않는다.
- ③ 수건이나 베개, 담요, 안약, 화장품 등 개인 소지품 등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유행성 눈병 환자 행동 수칙

- ①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수돗물에 손을 철저히 씻도록 한다.

† 비누와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60% 이상 알콜 성분의 손세정제를 사용한다.

† 유행성 눈병 환자와 접촉 후 반드시 손을 씻는다.

- ② 눈을 만지거나 비비지 않는다.
- ③ 수건이나 베개, 담요, 안약, 화장품 등 개인 소지품 등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 ④ 사용한 수건 등은 반드시 뜨거운 물과 세제에 세탁해야 한다.
- ⑤ 안과전문의 진료를 받도록 한다.
- 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수영장 등은 가지 않도록 한다.

유행성 눈병 이렇게 예방하세요!



일반인용

감염 예방 수칙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수돗물에 손을 철저히 씻는다.



눈을 만지거나 비비지
않는다.



수건이나 베개, 담요, 안약,
화장품 등 개인 소지품 등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환자 행동 수칙



눈병이 발생한 경우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수영장에 가지 않도록 한다.



안약은 감염된 눈에만 점안하며
타인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눈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바로 안과진료를 받는다.



사용한 수건 등은 반드시
뜨거운 물과 세제에 세탁한다.



